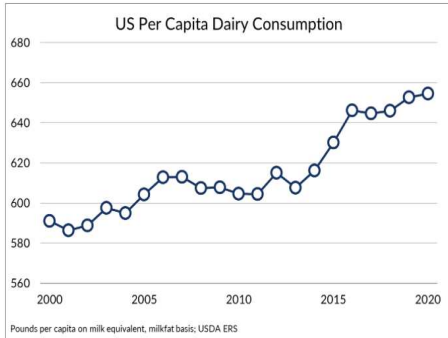




[소비동향] 美 소비자, 팬더믹 속 콤포트푸드로 버터 및 아이스크림 꼽아

- 지난해 버터 및 아이스크림 소비 증가로 1인당 유제품 소비량 약 297kg까지 늘어



미국의 유제품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버터와 아이스크림이 팬더믹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콤포트 푸드로 손꼽혔다.

최근 농무부(USD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1인당 전체 유제품 소비량은 655파운드(약 297kg)로 2019년 대비 3파운드(약 1.36kg) 증가했고 시유 소비는 주춤한 반면 요거트, 버터 및 아이스크림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버터와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각각 3%, 6% 증가하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로 위안을 주는 음식인 '컴포트 푸드(Comfort Food)'로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식당 서비스업의 유제품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면등교가 시작되며 우유 수요가 증가하고 유제품 수출 수요도 견고함에 따라 소비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출처 : dairyherd.com, 10월 1일 >

[시장동향] 英 대형 유통업체, 식량부족으로 매출 3조억원 손실

- 유제품, 탄산음료 등 공급 지연 및 인력 부족 현상으로 손실 막대



영국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브렉시트에 이어 운전자 부족으로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켓에서도 식음료가 매장에 유통되지 못해 막대한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보 분석 기업 닐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통업체도 운송에 차질을 빚으며 식량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9개월간 4대 대형 유통업체인 테스코, 세인즈버리, 아스다 및 모리슨의 매출 손실이 20억 파운드(약 3조 2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기간 식음료 구매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력난에 연료 부족 사태까지 더해져 유제품, 탄산음료 등 제품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공급망 혼란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수개월간 유통업체의 매출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출처 : thegrocer.co.uk, 10월 1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